

사회복지법인 운영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채현탁^{1*}, 임우현², 김영길³

¹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²영진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계열, ³대구광역시사회복지법인협회

Regional Economic Effect of the Management Social Welfare Foundation – focused on Daegu Metropolitan City

Hyun-Tak Chae^{1*}, Woo-Hyun Im², Young-Kil Kim³

¹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egu Cyber University

²Division of Social Welfare, Yeung Jin Cyber College

³Daegu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Foundation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운영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대구광역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총생산유발효과가 43,445억원, 총부가가치유발효과가 19,400억원, 총고용유발 효과가 37,411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에 대한 소비 지향적인 인식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지역사회로 적절히 홍보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grasp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 by establishing and operating it. For this purpose, the effects of the social welfare law of Daegu Metropolitan City on the regional economy were analyzed using the input-output analysis model. As a result, the effects of GDP was 43,445 billion won, the total value-added effect was 1,940 billion won, and the total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was 37,411. Based on these result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perception of consumer-oriented welfare toward welfare that contributes to the activation of the local economy. Second,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tinuously expand employment linked to social welfare service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jobs can be creat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to establish a separate support system. Third, the value-added created by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 should be newly recognized and sought to be expanded in various fields. Fourth, efforts should be made to secure the legitimacy of social service provision and ensure accountability by appropriately promoting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social welfare foundation to the local community.

Keywords : employment inducement, Interindustry Analysis, production inducement, Regional Economic Effect, Social Welfare Foundation, value addze inducement

본 논문은 2016 대구사회복지법인 세미나(2016.11.17.)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Hyun-Tak Chae(Daegu Cyber Univ.)

Tel: +82-53-859-7473 email: htchae@dca.ac.k

Received April 16, 2018

Revised May 10, 2018

Accepted July 6, 2018

Published July 31, 2018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우리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소득 양극화, 가족 붕괴, 고용 불안 등과 같은 사회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총체적 대응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 발전과정에서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여전히 민간영역의 대표적인 수행주체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1].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태동 초기의 설립 정신과 재산의 공익화라는 사회적 기여 부분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부작용으로 인해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보호문제를 위원단체와 개인에게 의존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이 사유화되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결과에서 출발한다[2].

대구지역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실행성이 강한 활동이 있었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가시화, 수치화하여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의 사회복지법인은 이러한 지엽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의 사회적 경제적인 기여의 주체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사회복지법인 운영기법 및 프로그램 기획, 홍보, 모금전략 개발,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형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금활동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2]. 그 결과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및 예산의 확대, 직원수의 증가, 서비스 영역의 확장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정당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법인을 거점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저소득 주민, 여성과 같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삶의 안정과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3].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적 기여와 더불어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체로 경제적 기여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지역의 경우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경제적·사회적 효과의 실증을 통해 순기능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4-7].

이에 대구지역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운영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민간영역의 대표조직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순기능을 확인하고 새로운 기능과 역할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이 설립·운영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지역경제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경제적 측면의 순기능을 확인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고 시민의 협조와 참여를 확대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사회복지법인의 경제적 효과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진행되며, 대구광역시를 분석의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운영 시설에 투입된 세입입·세출현황 자료에 기초하여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의 4개 시기를 시간적 분석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파급 효과의 연구 범위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로 설정하고 이를 파악하였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에 있어 과거 시간 단위를 현재 시간 단위에서 재분석하지 못한 것과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 등록 60개 회원법인 가운데 47개인 78.3%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대구지역 사회복지법인의 특징

현대적 의미의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은 1913년 플레처 박사가 나환자 진료소인 대구애락원을 설립한 것을 시초로 볼 수 있다[8]. 1980년대 시설수용보호 중심에서 재가복지 및 지역사회복지 중심으로 그 방향전환이 모색되었으며, 1990년대는 경제의 불황과 사회복지비의 지출이 증가하자 사회복지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회복지영역에서 민영화의 영역을 강화시켰다. 2000년대에 접

어 들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가 급증하였고, 사회복지 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으로 다원화 된 민간 영역의 확대와 사회복지법인의 양적 팽창은 사회복지법인의 역할과 기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되었다[9].

대구지역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은 생활시설에서 재가복지 및 지역사회복지 중심으로의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속에서 민관협력의 중요한 주체로서 새로운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10].

이러한 사회복지환경 변화는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이 지역사회에 생산, 부가가치, 고용 창출 주체로서 경제적 기여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다. 즉, 복지가 “경제를 조정하는 복지나 경제에 종속되는 복지가 아닌 스스로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복지체계로서 시장체제로부터 독자성을 가진다고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11], 사회복지 노동시장은 시장의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의와 평등, 연대와 우애로 대변되는 윤리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특성과 구성원간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재분배와 사회문제에 대한 연대책임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2]. 이에 따라 사회복지영역에서 노동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특성에 따라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종사자는 대부분 정부지출 국가고용인의 지위와 사회복지법인 소속 민간고용인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13]. 이렇듯 사회복지법인은 독특한 노동시장 구조 속에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운영 과정 속에서 재산권, 업무, 조직 등에 대한 법인의 권리와 자율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지원이 사회복지법인 유형별로 획일적으로 배분되어 지역이나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2.2 사회복지법인의 경제 파급 효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지역사회 내의 특정 사업이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나 경제적 특성, 혹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산업연관모형을 사용하는데, 이 모형은 거시적 경제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최종 수요에 의한 생산, 고용, 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계획의 수립과 예측

그리고 산업정책 방향 설정이나 조정 등에 유용한 분석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14].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영역에서도 공급 주체들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상북도 안동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5], 서울시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6],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사회복지 구성이 고용과 경제성장 효과분석이 있다[3]. 이러한 시도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순기능을 발굴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이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지역의 경제를 예측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러 지역을 포괄하는 다지역에 관한 모형과 단일지역에 관한 모형으로 양분되어 구축되었다. 특히 단일지역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산업연관모형들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지역에 관련하여 작성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나 관광축제, 혹은 산업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전략사업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15].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법인 및 시설 설치·운영에 따라 지역에 투입되는 금액을 이용하여 각 투입금액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살펴보게 된다.

생산유발효과는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최종수요에 의한 각 산업의 생산과급 과정에서 총산출액의 수준을 의미한다. 즉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 파급효과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그치지 않고 관련된 모든 산업부문 제품의 생산에까지 미치게 되며 그 총산출의 규모도 결정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OECD 주요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통계자료를 이용한 조사에서 사회복지지출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비율이 클수록 1인당 GDP와 고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활동이 생산유발효과와 관련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투입금액이 얼마만큼 지역생산을 유발하고 그 결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가를 의미한다. 이 효과가 클수록 해당 사업이 지역산업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보건 혹은 교육의 범위와 질을 향상시켜 직접적으로 국민소득과 고용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교통시스템과 통신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를 다각화시켜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고용유발효과는 지역경제에 투입된 금액이 고용자수를 얼마나 증가시키는가를 의미한다. 이것은 고용 창출과 관련된 고용효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불평등도가 낮아져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사회서비스로 인한 증가된 고용율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18-19]. 또한, 돌봄서비스의 확대에 의한 직접적 일자리 증가는 저소득층에 도움을 줄 것이며 사회서비스 확대에 의한 여성의 경력유지는 전문성 높은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3].

이렇듯 지역경제과급 효과의 실증적 확인은 대구지역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경제적 기여 현황 및 향후 새로운 영역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82개소 중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에 등록된 회원법인 60개소를 설정하였다.

3.2 조사내용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세입, 세출현황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의 4회기에 걸쳐 5년 주기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세입현황은 사업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 수입, 전입금으로 구분하였고 응답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재산수입, 과년도 수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은 기타수입으로 구분하였다. 세출현황은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로 구분하였으며 전출금, 과년도 지출,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및 기타는 기타지출로 구분하였다.

3.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6년 9월 20일부터 10월 10

일까지 구조화된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 조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 조사 설문지는 각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에게 사전 협조를 요청한 뒤,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조사내용 전반을 충분히 숙지하게 한 후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표는 조사대상 사회복지법인 60개소에 배부하여 47부를 회수하였다.

3.4 자료분석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법인의 일반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SPSS for Windows Ver 18.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역경제 과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모형분석을 이용한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는 산업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보통 1년)동안 국민경제 내의 모든 거래를 기록한 종합적 통계표를 의미한다[5]. 우리나라는 1958년 당시에 부흥부 산업개발 위원회가 1957년과 1958년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한 이래 2014년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작성,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기초로 전국의 산업구조와 대구광역시 산업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지역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산업연관모형을 지역산업연관모형으로 전환하였다. 대구광역시의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전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한 후, 여기에 입지계수법(Location quotient approach)을 적용하여 지역의 산업구조를 반영한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Gauss ver5.0을 사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는 절차에 따라 프로그래밍하고 관련된 값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한 절차는 산업연관표에서 투입계수행렬을 산출하고 이것을 항등행렬에서 뺀 후 역행렬을 취해서 생산유발계수행렬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최종수요의 변화 즉 투자나 소비 등의 경제행위를 발생시키는 금액을 연산하여 최종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경제과급효과를 산출하였다.

4. 결과분석

4.1 대구 사회복지법인의 일반적 특성

대구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후 평균 운영기간은 31년 2개월이며, 주요사업은 노인복지 34.0%, 장애인복지 25.5%, 사회복지일반 19.1%, 아동복지 8.5%, 영유아복지와 모부자복지가 6.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 대상은 노인 34.0%, 장애인 25.5%, 지역주민 17.1%, 아동 8.5%, 영유아 6.5%, 여성 및 이주여성 4.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사무국(총)장 44.4%, 기타 53.3%로 나타났다.

대구사회복지법인의 이용자(거주자)는 정원은 평균 1,424.68명, 실인원은 2,957.37, 연인원은 평균 37,898.46명이며 자원봉사자는 평균 13.09명, 후원자는 평균 568.53명, 신규 개발프로그램 수는 평균 2.85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평균 0.43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대구 사회복지법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4.2.1 대구광역시의 산업연관분석모형

대구광역시의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먼저 한국은행에서 실측하여 작성한 전국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전국 산업연관모형을 지역 산업연관모형으로 변환시키는데 있어서는 네 가지 비조사항법론이 사용되나, 입지계수법(Location quotient approach)을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입지계수법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는 절차를 보면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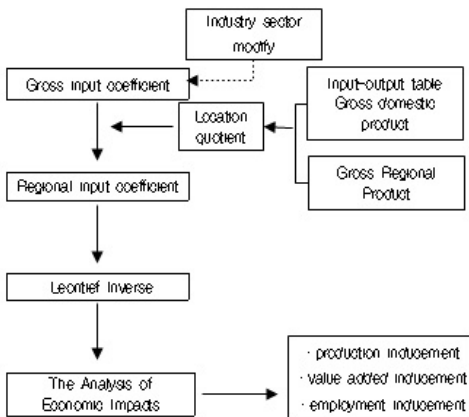


Fig. 1. Procedure of Input-Output Table

이후 지역의 산업별 입지계수를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도출하게 된다.

$$LQ_i^r = \frac{\frac{X_i^r}{X^r}}{\frac{X_i}{X}}$$

도출 수식에서 LQ_i^r =지역 i산업의 입지계수, X_i^r = r 지역 i산업의 생산액(혹은 고용자수), X^r = r 지역 전 산업의 생산액(혹은 고용자수), X_i = 전국 i산업의 생산액(혹은 고용자수), X = 전국 전 산업의 생산액(혹은 고용자수)을 각각 나타낸다. 여기서 입지계수가 도출되면, 다음 단계로는 전국투입계수표를 이용하여 지역투입계수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alpha_{ij}^r = \alpha_{ij} - m_{ij}^r$$

사용 수식의 α_{ij}^r = 지역투입계수, α_{ij} = 전국투입계수, m_{ij}^r = r지역의 i산업으로부터 j산업의 이입계수를 각각 의미한다.

입지계수법은 지역내 산업간의 투입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업간 투입구조에서 지역내로 이입분만큼을 차감하여 지역투입계수를 작성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입지계수인 $LQ_i^r \geq 1$ 이면 i산업은 지역이 전국보다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지역으로부터 이입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전국투입계수를 지역투입계수로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만약 입지계수인 $LQ_i^r < 1$ 이면 i산업 생산물 일부가 외부로부터 이입되기 때문에 전국투입계수에서 이입되는 양만큼을 차감하여 지역투입계수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의 방식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lpha_{ij}^r = \alpha_{ij} - m_{ij}^r = \alpha_{ij} - (1 - LQ_i^r) \cdot \alpha_{ij} = LQ_i^r \cdot \alpha_{ij}$$

LQ계수를 추정하는데 이용한 자료는 전국과 대구광역시의 GRDP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 2000년과 2005년, 2010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2015년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2014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LQ계수를 도출하였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근간으로 한 도시지역으로 지역의 산업구조가 2000년에서 2014년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여 적용한 것이다.

도출된 LQ계수를 이용하여 각 시대의 전국산업연관표에 적용함으로써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Table 1. By point time Dae-gu Location Quotient

	2000	2005	2010	2014 (2015 replacement)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0.188	0.180	0.168	0.138
Mining and quarrying	0.097	0.198	0.110	0.050
Manufacturing	0.833	0.766	0.729	0.742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0.557	0.426	0.332	0.325
Construction	0.962	0.938	0.878	1.024
Wholesale and retail trade	1.414	1.361	1.305	1.219
Transportation and storage	1.144	0.924	1.020	0.969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1.053	1.152	1.142	1.19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0.744	0.804	0.680	0.571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1.183	1.245	1.184	1.187
Real estate activities	1.386	1.340	1.360	1.367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rental and leasing activities	0.613	0.742	0.760	0.772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1.181	1.244	1.320	1.385
Education	1.268	1.364	1.471	1.467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1.441	1.362	1.581	1.528
Arts, spo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1.128	1.324	1.325	1.264

4.2.2 대구사회복지법인의 지역경제파급효과

조사대상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통해서 대구광역시에 지출되어 투입되는 세출현황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구분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사무비 :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로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지출되는 금액
- 재산조성비 : 시설비로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증개축 및 자산취득, 장비유지를 위해

지역에 지출되는 금액

- 사업비 : 일반사업비로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에 지출되는 금액
- 기타 지출 : 진출금,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및 기타로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운영을 위해 소모성으로 지출되거나 위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 금액

이와 같이 지역에 지출되어 투입되는 금액은 각 산업 부문에 맞추어 발생하며, 이를 통해서 각 산업부문의 최종수요를 유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최종수요가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를 측정하여 분석한다. 대구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기준 시기별 세출 투입현황을 총괄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By point time Social Welfare Expenditure

	2000	2005	2010	2015
Miscellaneous Administrative Expenses	8,454	23,021	165,370	585,052
Property, Plant, & Equipment Expenses	2,169	2,980	31,354	20,349
working Expenses	5,436	14,384	537,724	1,135,528
other Expenses	2,680	3,899	129,716	206,992
total	18,739	44,284	864,163	1,947,922

투입은 2000년에 18,739백만원, 2005년에 44,284백만원, 2010년에 864,163백만원, 2015년에는 1,947,922백만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입된 사무비는 2000년에 8,454백만원, 2005년에 23,021백만원, 2010년에 165,370백만원, 2015년에는 585,05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조성비는 2000년에 2,169백만원, 2005년에 2,980백만원, 2010년에 31,354백만원, 2015년에는 20,34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입된 사업비는 2000년에 5,436백만원, 2005년에 14,384백만원, 2010년에 537,724백만원, 2015년에는 1,135,52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기타지출은 2000년에 2,680백만원, 2005년에는 206,99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입된 금액은 4개 시기에 따른 금전적 가치를 일정부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준 시기별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를 총괄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By point time Regional Economic Spread Effect

	production inducement	value added inducement	employment inducement
2000	294	128	271
2005	696	309	577
2010	12,984	5,839	10,959
2015	29,471	13,124	25,634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 효과는 2000년에 294백만원, 2005년에 696백만원, 2010년에 12,984백만원, 2015년에 29,47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000년에 128백만원, 2005년에 309백만원, 2010년에 5,839백만원, 2015년에 13,12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용유발 효과는 2000년에 271명, 2005년 577명, 2010년에 10,959명, 2015년에 25,634명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기관의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경제파급효과는 기준 시기별 금전적 가치를 일정 부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이 설립·운영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민간영역의 대표조직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순기능을 확인하고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법인의 경제적 효과는 산업연관모형분석에 의한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하여 확인하였고,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분석을 병행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2000년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지

역경제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29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28억원, 고용유발효과가 271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5년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69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309억원, 고용유발효과가 577명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0년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12,98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5,839억원, 고용유발효과가 10,959명으로 나타났다.

넷째, 2015년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29,47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3,124억원, 고용유발효과가 25,634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개의 시기별 금전적 가치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수치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 가운데 일부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구광역시 전체 사회복지법인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대구광역시의 사회복지법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에 대한 소비지향적인 인식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설치·운영은 소비 지향적인 것으로 치부되어온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 시설·기관의 거주인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이들의 욕구 충족 및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그 생산성 또한 이것에 한정되어 계산·과약되어 왔던 것이다[5].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설치·운영이 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복지서비스에 따른 효과를 가져다 줄 뿐만아니라 거시경제적 순환구조에서 타 산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기관이 가져왔던 소비지향적인 복지에 대한 시각을 지역경제파급효과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의 주요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내용[5]과 일치한다. 이 연구를 계기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기관과 지역경제파급효과와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확대시킬 필요

가 있다.

둘째,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조사결과에서도 보듯이 2000년 271명, 2005년 577명, 2010년 10,959명, 2015년 25,634명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휴먼서비스와 사회서비스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창출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별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20]. 즉, 현재 창출된 고용유발 효과를 바탕으로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고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16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법인 개혁을 추진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더하여 어떠한 부가적인 역할을 더 수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지역공익활동 의무화가 제시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과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복지실천 주체로서 법인의 역할을 강조해 오고 있다[21]. 이는 지역 내에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과 종사자, 생활인들과 연계된 네트워크가 상호작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경제적 성과를 적절히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일은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기관의 설치·운영에 따른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갈 수 있는 중요한 과업이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기관의 사회서비스는 긍정적인 면을 홍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경제적 과급효과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기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체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References

- [1] Yeonmyung Kim, Sanghee Park, Is it public welfare or private welfare?: A study on the character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in Korea.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Vol.- No.36, pp 3-38. 2012.
- [2] Youngsook Kang, Exploring the Growth Process Type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Korea - Focusing on Social Welfare Corporations Operating Social Welfare Faciliti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63 No.4, pp225-251, 2011.
- [3] Byung-Sub Cha · Young Lee,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Composition of Social Expenditure on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 Vol.63 No.4, pp.81-119, 2015.
- [4] Keum Hwan Kim, Mi Ran Lee, A research on the Riffing Effect to Regional Economy of Welfare Institution for the Disabled,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Daegu University*, Vol.46, No.4, pp 131-148, 2007.
- [5] Hyun Tak Chae · Sung Duk Park · Tae Young Park, The Analysis of Regional Economic Impacts of Social Welfare Facility: Focused on Andong-si, Gyeongsangbuk-do, *Social Welfare Policy*, Vol.35 No.-, pp433-455. 2008.
- [6] Kyung Hye Kim · Hyungho Youn · Socio-Economic Effects of Social Welfare Spending, pp44-55, The Seoul Institute. 2013.
- [7] Dong Hwa Kim, Multi-level Analysis of Social Enterprises' Performance - Focusing on workers'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pp.32-46, *Daegu University*. 2011.
- [8] Jun Sang Lee, The history of Dae-Gu Social Welfar Foundation, pp.15-26, Dae-Gu Association of Social Welfar Foundation, 2014.
- [9] Tae Young Park, the changed environ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Directions for Social Welfar Foundation, pp.367-378. Dae-Gu Association of Social Welfar Foundation, 2014.
- [10] Tae Young Park, The Current State, the Futher Direction and the Process of Community social welfare in Korea.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_ No.11,pp.407-430, 2016.
- [11] Bong Jin Ko. "The welfare system as self-referential system".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Vol. 12(1), 2009, pp 315-334.
- [12] Kim, Su-Young, Collision between Welfare and Work in a South Korean Welfare-to-Work Progra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4, No. 3, 2012. 8, pp. 203-229.
- [13] Park Soon-woo · Lee, Kyoo-sun, A Study on the Labor Market Duality of Social Workers- Comparison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52, 2015. 3. 1. pp. 171-197.
- [14] The Korea Bank, The Interpretation of Input-Output Table. pp.313. The Korea Bank, 2004.
- [15] Sung Duk Park, The Analysis of Regional Economic Impacts of Nuclear Power Plant, *Kyung bok University*,

2005.

- [16] Ahn, Sang-Hoon and Soo-Wan Kim, "Social Investment, Social Service an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Welfare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24, Iss. 2, 2015. pp.109-119.
- [17] Cali, Massimiliano, Karen Ellis and Dirk Willem te Velde, *The Contribution of Services to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rade Liberalisation and Regulati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2008.
- [18] Midgley, James, "Involving Social Work in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 39, 1996, pp.13-25.
- [19] Zang, Hyoung-soo and Tae-wan Kim, "Effects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Growth and Inequalit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27, No. 2, 2007, pp.3-24.
- [20] Kyung Ha Park, Hyun Mi Lee, *The Determinants of Public Funded Elderly Works Duration : Discrete Time Hazard Model*, *Korea Social Policy Review*, Vol.22 No.1, pp. 435-460, 2015.
- [21] Se Woong Oh, *Changes in the management environment of Japan's social welfare foundation and the practice of community welfare as a response strategy*,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2016 No.11, pp.147-175, 2016. *Korea Social Policy Review*.

채 현 탁(Hyun-Tak Chae)

[정회원]



- 1999년 2월 : 계명대학교 상담심리 전공(교육학 석사)
- 2007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철학박사)
- 2007년 10월 ~ 현재 :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복지, 자원봉사, 주민조직화, 사회복지실천

임 우 현(Woo-Hyun Im)

[정회원]



- 2005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15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 2007년 2월 ~ 현재 : 영진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계열 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

김 영 길(Young-Kil Kim)

[정회원]



- 1995년 2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12년 1월 ~ 2018년 2월 : 선명요육원 원장
- 2018년 4월 ~ 현재 : 자유보호작업장 원장
- 2015년 3월 ~ 현재 :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 사무처장

<관심분야>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복지